

“더 나은 민주주의·민생으로 지속가능한 내일 이끌겠다”

민선 8기 3년 성과·방향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8일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 이룬 성과를 발판 삼아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민생,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진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내일을 견인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청장은 “그동안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시민의 뜻이 정책이 되는 규정, 일하는 방식을 위해 혁신을 일으키고자 힘썼다”며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키우고 그 신뢰가 새로운 참여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었다”고 자부했다.

특히 “찾아가는 경정 구청장실, 동 미래발전계획, 1313이웃살림,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등 민선 8기 모든 핵심 정책의 동력은 민주주의”라며 “경청과 소통이 낳은 연대와 참여는 ‘동 미래발전계획’으로 진화했고, 구 단위 행정에 멈춘

경청 행정 ‘시민 주인’ 혁신 선도
자치분권 확대 동 미래발전 추진
지역화폐 발행 등 민생 회복 집중

자치분권을 21개 동으로 확대해 시민들이 직접 ‘마을정부’로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이어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로 추진하는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조성 정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노동자가 돌봄, 교육, 의료, 주거의 부담을 덜어야 사람이 살고, 지역이 살며, 나라가 살 수 있다”며 “시민이 직접 나서서 일자리 문제를 정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만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사회적 대화에 나선 끝에 시민의 질문 1,436개를 확보해 녹서를 제작했고, 현재 녹서에 대한 답을 구하는 2차 사회적 대화를 앞두고 있다”며 “2차 사회적 대화로 구한 답을 백서로 제작하고, 이것의 실행계획을 담은 청서를 만들어 내년부터 지속가능 일자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박 청장은 “광산구는 지난 3년 동안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회복하는 데 총력을 쏟았다”며



“올해부터는 6대 분야, 64개 세부사업에 150억 원을 투입하는 ‘다같이 민생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9월에는 100억원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 지원에 힘입어 광주 군공항 이전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며 “최근 발생한 금호타이어 화재가 지역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만큼 시민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광주공항 이전을 금호타이어 정상화 계기로 삼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청장은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민주주의로 혁신하는 일을 계속하겠다”며 “경청으로 주권자의 뜻을 파악하고, 시민과의 대화로 정책을 구현해 거둔 지난 최초·최고의 성과를 더욱 높이면서 민선 8기 구정 목표의 추진 속도를 높여겠다. 주권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광산시민과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봉 기자



“곰탕 드시고 건강한 여름나세요” 8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봉사관에서 적십자사 봉사원 등이 인근 어르신들께 나누곰탕 하안집 윤암점에서 후원한 곰탕을 대접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동구, 지자체 최초 ‘서비스 AI 리더상’ 수상

광주 동구가 ‘2025 한국 서비스 대상, AI 적용 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서비스 AI 리더상’을 수상했다.

7일 동구에 따르면 이 상은 한국표준협회 주관하며 고객 중심의 서비스 품질 경영을 실천한 기업에게 수여된다.

이번 공모전에는 대한항공, KT, LG전자, 삼성물산, KB국민은행 등 전국 우수기업의 30여개 기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이 중 지방자치단체로는 동구가 유일하게 상을 받았다.

동구는 전국 최초로 개발한 AI 종량제 봉투 배출함과 청소차 도착 정보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AI 리더상’을 수상했다. 특히 ‘동구리미ON’을 통해 시민들의 자원순환 참여를 유도하고 편리함을 제공해 고질적인 골목 쓰레기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구가 특허 출원한 AI 종량제 배출함은 머신러닝으로 종량제 봉투 이미지를 학습하고 AI가 종량제 봉투만 인식해 투입구를 개폐하는 시스템이다. 이수민 기자

“관련 절차 무시 가로수 수백 그루 무단 제거”

김현숙 동구의원 5분 발언

광주 동구가 푸른길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무시한 채 가로수 수백 그루를 무단으로 제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김현숙 동구의원은 이날 제319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절차를 무시한 동구의 무단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동구는 올해 5월부터 푸른길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시작해 계림동 일대에 식



재된 325그루 가로수 중 100그루를 제거하고, 나머지 225그루에 대해서는 수목 전지사업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제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동구는 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달리 자체 가로수 조례가 없어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로수는 시민들과 함께 호

흡하며 도시 역사를 만들어온 소중한 공동자산이다”며 “가로수 제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선유도공원, 제주공항 보행로 사례로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 모델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제거된 100그루 나무중 대부분 고사목 또는 병해충에 감염된 나무였다”며 “푸른길공원의 경우 주택가와 인접한 나무가 많아 꾸준히 민원이 접수됐다”고 반박했다. 이수민 기자

광주진로진학박람회 18~19일 DJ센터서 오픈

전국 대학의 입시정보를 총망라하는 ‘광주진로진학박람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8~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광주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수도권 주요 대학을 포함해 전국 148개 대학이 참여해 급변하는 입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심층 입시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참여 대학은 148개교로, 지난해보다 18

개 대학이 늘어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각 대학 입학사정관이 198개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고3 학생들의 대입과 고1·2 입시 대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또 행사 기간에 광주진로진학지원단 소속 대입상담교사 70명이 현장에 상주하며 고3 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1대1 상담을 진행한다.

다양한 진학 관련 특강도 운영된다. 18일에는 △고3 학생을 위한 학생부종합전

형 면접 대비 특강(이정립 건국대 입학사정관) △고2·3 학생을 위한 2026~2027 대입전형 특강(김진석 EBS 입시대표강사) △무전공·첨단학과·계약학과 분석 특강(조만기 경기 다산고 교사) 등이 진행된다.

이어 19일에는 △고1 학생에게 적용되는 2028 개편 달라진 대입제도 특강(조정훈 광주 대입지원관) △진로 맞춤형 설명회로 예체능 계열 음악 특강(문수영 광주예술고 교사) △미술 특강(안혜정 광주예술고 교사) △체육 특강(노동기 경기상원고 교사) 등이 마련됐다.

최환준 기자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건강한 사이버 세상,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함께 만들어요!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사이버폭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M 전남매일